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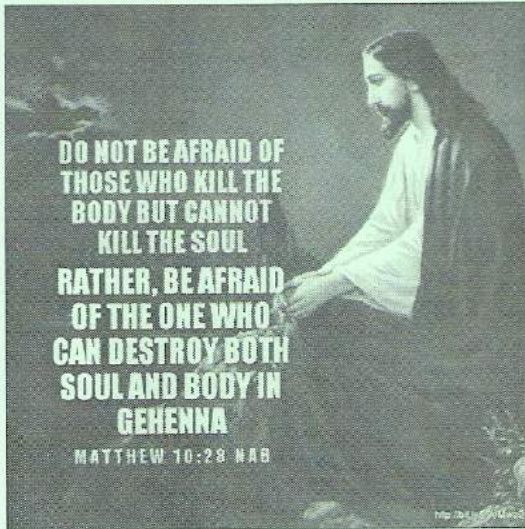
#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2주일  
제37권 31호(가해) 2017년 6월 25일

[묵상]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 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 780-2789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

**두려움에 대한 공포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첫째, 감추인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르침을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둘째, 참된 생명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셋째, 천상의 아버지의 섭리가 항상 깨어 지켜 주시기 때문에  
"단돈 한뼉"에 팔리는 참새 두 마리의 운명도  
그분의 보살핌 아래 있어 아버지께서 지켜 주시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세력이 정복되고,  
하느님의 나라가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 하지마라.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매일 같이 증거 해야 할 복음이다.

-오-

petrus3@hanmail.net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 미사 안내

|     |                              |                                     |
|-----|------------------------------|-------------------------------------|
| 화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수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목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금요일 | 아침 미사                        | 오전 8:30                             |
| 토요일 | 신심 미사(첫 토요일)<br>저녁 미사 (청년미사) | 오전 8:30<br>오후 7:00                  |
| 주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 7:30<br>7,8월 방학 미사없음<br>오전 11:00 |

## 주간행사표

|     |                                                                                                                                                     |                                                                        |
|-----|-----------------------------------------------------------------------------------------------------------------------------------------------------|------------------------------------------------------------------------|
| 수요일 | 레지오 마리아                                                                                                                                             | 오후 8:00                                                                |
| 목요일 | 성 시간 (첫 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br>예비자 교리반<br>성령기도회                                                                                                         | 저녁 미사후<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요일 | 성경공부(성경통독)                                                                                                                                          | 오전 9:30                                                                |
| 토요일 | 제대회 모임(첫토요일)<br>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br>울뜨레아(넷째 토요일)<br>배론청년회 모임                                                                                        | 오전 10:00<br>오후 6:00<br>오후 8:00<br>저녁 미사 후                              |
| 주일  | 레지오 마리아<br>아도라테 성가대<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br>● 꾸리아 오후 1:30<br>3째주 - ●요셉회<br>4째주 - ●사목회<br>● 빈첸시오회 | 오전 중<br>오전 8:3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1:00 |

##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    |                                  |
|----|----------------------------------|
| 주일 | 8시(오전) ~ 4시(오후)                  |
| 월  | CLOSED                           |
| 화  | CLOSED 2:00 ~ 7:00(오후)           |
| 수  |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
| 목  |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
| 금  |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
| 토  |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요<br>저녁<br>미사 | (연) 서성용 베드로,<br>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박승효 & 박 레이몬드                                                                                    |
|                | (생) 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
| 주일<br>학생       | (연)<br>(생) 박인규 요셉 & 박인수 프란치스코                                                                                                  |
| 주일<br>낮<br>미사  | (연) 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이정영 야고보,<br>김진엽 마리아, 김정례 수산나, 변진섭 다두, 주중명 헨리코,<br>김병순 & 이상훈,                                             |
|                | (생) 손석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토동1구역 가정들,<br>이영순 아네스, 변복순 베로니카 & 신민숙 카타리나,<br>권오상 바오로 & 세실리아 가정, 이마태오 & 이미카엘,<br>김임식 마누엘라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미야서(Jeremiah) 20, 10-13

화답송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 하 소 서.

○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 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 하여라.  
하느님 찾은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둔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 12-1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  
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복음 마태오(Matthew) 10, 26-33

영성체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7. 인류와 세상의 상황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성찰은 우리의 현재상황과 비교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루하고 추상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속해있는 세상을 마주하여 신앙이 어떻게 새로운 동기와 요구사항을 부여하는 지에 대하여 성찰해 보기 전에, 우리의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8. 인류와 지구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가속화 되면서 오늘날 삶과 노동의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신속화'(rapidacion)라고 지칭합니다. 변화가 복잡계의 역학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활동이 발전해 온 속도는 자연의 느린 생물학 적 진화속도와 대비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빠르고 지속적인 변화가 반드시 공동선이나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가 바람직한 것이지만 세상과 많은 인간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면 근심거리가 됩니다.

19. 진보와 인간능력을 비이성적으로 확신하던 시기가 지나서 이제 사회 한쪽에서는 좀 더 강한 의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진심 어리고 애뜻한 관심과 더불어 환경과 자연보호에 대하여 사람들이 더 민감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더 이상 감추어 둘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매우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정보축적이나 호기심 충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렬하게 자각하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자신의 고통으로 삼아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I. 오염과 기후 변화

오염, 쓰레기, 버리는 문화

20.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오염들이 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은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와 난방에 사용하는 연료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연기를 흡입하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계속>

| 오늘의 성가 | 토요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시작     | 200  | 200   | 200  |
| 봉헌     | 265  | 265   | 265  |
| 성체     | 287  | 287   | 22   |
| 파견     | 119  | 119   | 187  |

##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으면...

제자는 파견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중 가장 우선적인 일은 복음선포일 것이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4, 17) “앓은 이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마태 10, 8)

그러나 이러한 복음선포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박해를 각오해야만 했었다.(마태 10, 16~25 참조) 그리고 박해가 있다고 해서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심지어는 순교까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다. 박해와 순교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박해가 있거나 순교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박해와 순교의 상황을 찾아다닐 순 없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정신적인 영역인 것 같다. 바로 순교의 정신이다. 박해의 상황은 아니고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야기되고 있으니 그 정신만큼은 지니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아닌데 상황과 다른 정신을 계속 지속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실 오늘날 복음선포에 있어서 힘든 것은 복음이 과연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물론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만이 잘 선포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좀 무언가 분명하게 손에 잡히지 않으니 전하다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다. 첫째로 복음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이런 것도 복음이요 저런 것도 복음이니 그냥 일반적인 윤리의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성당에 나오는 것이

좋다는 식의 선포는 이제 별로 매력이 없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손에 잡힐 수 있도록 분명했으면 한다. 둘째로 시대가 변한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하늘 나라’ 하면 사람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사람들의 요구에 다 장단을 맞출 수 없지만 그래도 시대가 변한 것은 사실이니 복음의 내용도 그 설명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으면 한다. 셋째로 복음선포가 너무 통계적이고 양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 물론 복음이 선포된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야 없을 수 없겠지만 여기에만 치우쳐 있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무엇을 전해야 만이 현대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날에는 박해와 순교가 있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방향 상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 이민 신부 / 명촌성당 주임

### 비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름을 떨치고 싶던 사람이  
결국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살림을 하고 싶던 사람이  
매일매일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의 의미는 사람마다 달라  
성공한 삶엔 높낮이가 없고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저 다양할 뿐.  
일생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일기를 쓰고 있으니 저도 지금까지 성공입니다.  
- 이영 아네스 -

### 이번주 전례봉사가

| 이번 주  | 토요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최태훈<br>아오스딩 | 유지아<br>클라라 | 정광미<br>프란체스카  |
| 제1독서  | 박혜경<br>레나타  | 김교복<br>레오  | 정인욱<br>아오스딩   |
| 제2독서  | 서용숙<br>에스텔  | 김금자<br>데레사 | 전하현<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하버/카슨<br>1,2반 |

### 다음주 전례봉사가

| 다음 주  | 토요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최태훈<br>아오스딩 | 박은혜<br>클라우디아 | 이재용<br>안드레아 |
| 제1독서  | 박진수<br>스테파노 | 이민상<br>요한    | 신중철<br>아브라함 |
| 제2독서  | 서용숙<br>에스텔  | 이순자<br>비비안나  | 정명모<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PV<br>1,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 오창근 베드로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6월29일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 축일로  
오창근 베드로 본당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오늘주일(25일) 전신자에게 맛있는 무우국을 대접합  
니다. 토런스 남 1,2구역에서 봉사해 주십니다.

### ◆주일학교 방학기간 미사 시간 조정안내

주일학교 방학기간에 9시반 학생미사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성인 미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일미사는 아침 7:30과 11:00 미사만 있습니다.

● 실시기간 7월2일(주일)~ 8월 27일(주일)까지

### ◆주일학교 2017 여름캠프 사전 등록

● 주제: Catholic World of Harry Potter

● 장소: Santiago Retreat Center

27912 Baker Canyon Rd. Silverado CA 92676

● 일시: 8월11일(금요일) - 8월13일(주일)

● 사전등록일 6월 18일~ 7월2일까지, 선착순 30명

● 사전등록 후 참가비용 : \$60/person

### ◆2017 ~ 18년도 주일학교 등록 안내

● 등록: 6월 4일~7월 2일 (주일학교 재무, 교장,또는 사무실)

● 추가 필요서류: 세례, 첫 영성체, 견진 증명서

● 등록서 작성요령: 가정당 등록 학생이 1명일 경우 1~3 page,  
등록 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페이지 작성.

● Check payable to: 103 SKCC

(조기등록 할인(-\$20) 혜택 있습니다 : \$120, 100, 80)

### ◆아침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 연습시간 : 아침미사 전후 30분

● 연락처 : 정테레사 ☎(310)650-6993

### ◆ 주보 광고에 협찬해 주신 광고주들께 감사 드립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주보 광고를 후원해주시는 광고주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7월부터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됩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해 주십시오.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 25일 :미역국 (\$0, 토남 1,2 봉사)

● 7월 2일 : 김밥(\$4), 사발면 (\$2, 토동봉사)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 성전헌금                                                                      |
|-----------------------------------------------------------------------------------------------------------------|---------------------------------------------------------------------------|
| 김병태 김진우 김찬구 남성철 박개순 변복순<br>신순철 오상준 윤 철 윤화경 이미예 이민상<br>이병우 이상곤 이재철 이종필 정규숙 최기호<br>최미열 최원석 한창주 한혁수 홍석인 황지영<br>황철수 | 김찬구 남성철 박개순 변복순 신순철 윤화경<br>이미예 이민상 이병우 이상곤 정규숙 최기호<br>최미열 최원석 한창주 한혁수 황지영 |
| 합계:\$2,940                                                                                                      | 합계 : \$1,780                                                              |
| 주일미사헌금 :\$2,433                                                                                                 | 주보광고비 : \$240                                                             |
| 주일학교 등록금 : \$2,180                                                                                              |                                                                           |

남가주 소식

◆제30차 성령쇄신대회

- 주제: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1코린 3,17)
  - 일시: 8월 27일(토) 오전8시-오후10시,  
8월 28일(주일) 오전8시-오후6시
  - 장소: Redondo Beach Performing Arts Center  
(1935 Manhattan Beach Blvd, Redondo Beach, CA 90278)
  - 강사: 송봉모 토마스 신부님 (서강대 교수)  
안규도 도미니코 신부님 (인천교구 성령쇄신 지도신부)  
최영배 비오 신부님 (들꽃마을 창설자)
  - 참가비: \$20 (당일 현장 \$25)
  - 준비물: 목주, 도시락, 물  
(도시락주문 가능-8/13 주문마감, \$8/1개)
- 주의사항: 장소사정상 국물이 있는 도시락은 절대 불가합니다.  
도시락은 장내 반입이 안되므로 바깥 텐트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다. 상하지 않는 음식을 준비 해 오시기 바랍니다.
- 주최: 남가주 성령쇄신봉사회
  - 문의: 강혜원 아네스(310-780-0369)

◆성 토마스 성당 하루 피정 "오늘"

- 일시: 7월 1일(토) 오전 9시~오후 4시
- 장소: 본당 토마스홀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91340
- 참가비: \$15.00(간식,점심 포함)
- 신청: 6월첫 주부터 (선착순70명)
- 문의: Clare Chung ( chiaralite@gmail.com)

◆미서부지역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CLC)특강안내

- 주제: 용서-평화의길
- 강사: 송봉모 신부( 예수회)
- 일시: 7월1일 (토)저녁 7시~9시,  
7월2일 (주일)오후2시~5시
- 장소: 성아그네스 성당
- 신청마감: 6월29일(목)
- 문의: 하세실리아 ☎ (323)578-2230, (562)233-7163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 구역/장                                     | 반       | 반 장                    | 장소/날짜                           |
|------------------------------------------|---------|------------------------|---------------------------------|
| 토런스 동<br>김춘자<br>막달레나<br>539-3377         | 1       | 오신제 메히틸다<br>713-4926   | 최성자 카타리나<br>06/07(수)오전11시 성당    |
|                                          | 2       | 장수영 패트릭<br>781-0787    | 김찬구 요한<br>06/10(토) 오후6시성당       |
|                                          | 3       | 윤미애 안나<br>560-7120     | 이정 카타리나<br>06/10(토)오후8시성당       |
| 토런스 서                                    | 1       | 박동수 베드로<br>218-7340    | 박인식 토마스<br>06/24(토) 오후5시        |
|                                          | 2       | 최양숙 안젤라<br>800-7393    | 이명필 라파엘<br>06/10(토) 오후5시30분     |
|                                          | 3       | 박명순 안나<br>968-7600     | 김태은 비비안나<br>06/17(토)오전10시30분 성당 |
| 토런스 남<br>김희연<br>루시아<br>(213)<br>458-3356 | 1       | 김준 방지거<br>625-3312     | 최옥희 데레사<br>06/23(금)오후7시30분성당    |
|                                          | 2       | 박정람 마르시아<br>634-6923   | 김여순 도미니카<br>06/19(월)오전11시       |
|                                          | 3       | 이희경 크리스티나<br>818-6903  | 송미숙 미카엘라<br>06/17(토)오후6시        |
| 토런스 북<br>이복임엘리사벳<br>905-2225             | 1       | 황지영 안젤라<br>938-8089    | 박현주 카타리나<br>06/11(일)오후6시성당      |
|                                          | 2       | 1반과 같음                 |                                 |
| 하버 카슨<br>주대종 다니엘<br>(818)640-<br>9171    | 1/<br>2 | 박진수 스테파노<br>749-3151   | 유명련 마리아<br>06/09(금) 오후6시 성당2층   |
| P. V.<br>송인선<br>안젤라<br>(503)<br>927-0770 | 1       | 남해나 베네딕타<br>384-3289   | 남 베네딕도<br>06/09(금) 오후7시         |
|                                          | 2       | 유지아 클라라<br>793-6157    | 배진영 프란치스코<br>06/10(토)오후6시       |
|                                          | 3       | 신혜정 토사<br>213-369-0687 | 윤현정 토마스<br>06/17 (토) 오후6시       |
|                                          | 4       | 이귀란 아네스<br>617-3568    | 이귀란 아네스<br>06/13(화)오전10시30분     |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사목회의 1시

다음주일 단체모임

## 나는 '종로 김'이었다

입 밖으로 한 번 나온 말은 얼질러진 물과 같아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마음먹은 생각이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뿌려지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군자가 조심해야 할 세 가지 끝, 삼단(三端) 중 하나가 '혀끝'인 걸 보면 말은 정말로 잘 써야 하는 도구입니다.

나는 70·80년대 역사의 격동기를 완전 연소하지 못한 부끄러운 20대로 통과했습니다. 그 처절한 실존과 관념 사이에서 오락가락 몸부림치던 스물세 살의 내가 어느 가을날 저녁 하늘을 젖은 눈으로 쳐다보았을 때입니다. 갑자기 입 밖으로 '한잔·1'이 흘러나왔습니다. 몇 십 년이 흘러도 이상하게 술술 주절대는 이 유치한 말장난은 이미 내 인생의 한 고개에 알코올중독자를 예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말이 씨가 된다더니 그 말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 한잔 · 1

즐거이 한잔 / 슬피 한잔 / 그리고 청춘이다 사랑이다  
한잔 / 저마다 잔을 채우며 살아가잔다 / 해 저문 지평선  
갈 길은 먼데 / 가난한 사람 위에 빈 하늘이 좋아라 /  
저 나름으로 사는 게 인생 / 한잔 앞에 미안쩍어 / 지난  
날 부끄럼 잊어버릴까 / 잔의 고백은 본시 외로운 것 /  
누구나 다 지난 후에는 그리운 시절이오만 / 나는 나는  
내 모든 이야기 잊고저요 / 오른 가슴 비가 내리고 / 왼  
가슴 꽃잎이 지니 / 만나서 한잔 / 헤어져 한잔 / 못 잊  
어 차마 못 잊어 한잔 / 저마다 잔을 비우며 죽어가잔다

'종로 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나의 또 하나의 이름.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낙인의 이름. 2010년 어느 무렵던 날, 알코올중독으로 내 생애 네 번째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을 때 환자들의 인권을 위해 익명으로 불리던 나의 이름. 지금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 무서운 스승의 채찍으로 다가오는 이름. 내 다시 열심히 살아가면서 가끔씩 혼자 웃으며 추억처럼 불러보는 나만의 이름 '종로 김'.

2017년 6월 현재, 6년 10개월째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고 나뭇대로 잘 견뎌 내고 있는 '종로 김'. 말이 씨가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 몇 년 새 내 말버릇은 사랑과 평화의 말을 쓰지 않을 바엔 차라리 침묵을 배우는 쪽입니다.

아니면 배꼽 빠지게 웃거나 웃기거나. 이것이 지은 죄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 입이 수백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나의 유구무언행(有口無言行)입니다. 몸은 크게 세 개

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눈길, 손길 그리고 발길. 내 이제 사랑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화의 손길로 세상을 어루만지고 그리하여 자유의 발길로 이 세상을 걸어가리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오랜 세월 잘 가다 보면 내가 미쳐서 술잔에 침몰시킨 죽음보다 고독했던 내 청춘 인생에 조금이나마 덜 미안하긴 한 걸까요?

## 내 청춘 / valentino

그대 입술처럼, / 내 불꽃 청춘을 덮었던 먹구름은 / 검은 입술을 깨물며 / 내 청춘의 뒷골목을 막 빠져나갔다, / 천둥과 번개 / 그 둘을 다 데리고.... 예전의 나는 알코올 주(酒)님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십자가 주(主)님에 빠져 있다네 알렐루야~.

◆ 김발렌티노 발렌티노 / cafe 인생은아름다와라 대표

## [길을 찾는 그대에게]

레지오 중 묵주기도를 하는데, 기도문을 바꾸어도 괜찮다고 해서 기도문 중 "태종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를 "가시관 쓰신 예수님은 복되시나이다."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복되시나이다." 등으로 바꿔 기도합니다. 괜찮을까요?

☞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께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루카 1, 28)라고 인사하고, 엘리사벳은 성모님께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종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루카 1, 42)라고 인사합니다. 성모송은 이 두 인사말을 빌어 하느님께 순명하신 성모님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분이라 인사드리고, 성모님의 순명 덕분에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노래하며, 우리 죄인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이러한 성모송을 반복적으로 외며 그 인사말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모님께서 낳으신 당신 아드님의 신비, 곧 탄생과 공생활, 수난과 죽음, 부활과 영광을 묵상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묵주기도를 공동으로 바치면서 성모송에 담긴 성경 구절을 마음대로 변형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구절에 담긴 의미를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묵주 기도에서 성모송 대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같은 성경 구절을 외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가자는 것입니다. 공동체 기도에 참여하는 몇몇 이들에게 분심 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코린 10, 23~33)

◆ 영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 에는 왜 "아멘" 을 하지 않을까?

아멘(Amen)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사 중에 바치는 '아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 기도와 예물기도 그리고 영성체 후 기도 끝에 교우들은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교우들이 사제가 바치는 기도예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도의 끝부분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마침 영광송을 사제가 바친 후에 신자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제의 영광송과 감사기도 전체에 온전히 마음으로 응답하며 동의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로 성체를 모시기 전에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교우들은 "아멘"이라고 응답을 합니다. 성체의 모습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멘'은 기도를 마감하는 응답이며 주님의 뜻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동의하는 신앙고백입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 끝에 바로 아멘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성찬례 예식 중 영성체 예식의 시작으로 사제는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하고 교우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바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교우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런 다음 사제는 혼자 부속기도(附續祈禱: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를 바칩니다. 부속기도가 끝나면 모든 교우가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하고 찬미의 기도로 끝맺음을 합니다. 즉 주님의 기도 그 자체로 기도가 끝나지 않고 사제의 기도와 이어지는 영광송이 "아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끝에는 "아멘"을 붙이지 않습니다.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였다."(느헤 8,6)

◆ 김지영 사무엘 신부

Quiz 본문의 단어를 참고하여 아래 빈칸을 채우세요.

|   |   |   |   |   |   |  |   |   |   |
|---|---|---|---|---|---|--|---|---|---|
|   |   |   |   | 청 |   |  |   |   |   |
|   |   | 님 |   |   | 구 |  |   | 속 | 자 |
|   | 미 | 의 |   |   |   |  |   |   |   |
| 양 |   |   |   |   | 그 |  | 스 |   | 의 |
|   | 포 |   | 주 |   |   |  |   |   |   |

6월18일 자 정답:

|   |   |   |   |   |   |   |   |   |   |   |
|---|---|---|---|---|---|---|---|---|---|---|
| 그 | 라 | 씨 | 아 | 천 |   | 통 | 공 |   | 석 |   |
| 리 |   |   |   | 상 |   | 회 |   |   | 사 | 라 |
| 스 |   |   |   | 의 |   |   |   |   | 후 |   |
| 도 |   | 연 | 옥 | 영 | 혼 |   | 위 | 령 | 기 | 도 |
|   |   | 도 |   | 광 |   |   |   |   | 도 |   |

### 「성경 속 동식물」 25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인 보리

성경에서 보리는 가난의 상징으로 쓰였다. 미디안족이 가난하고 겸손한 기드온을 업신여겨 보리빵으로 비유하는 대목이 나온다.(판관 7,12-15 참조)

보리 수확 때 보리 이삭을 주워 나오미를 봉양하는 룻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룻 2,1-23 참조)

보리는 죄악과 연관되기도 하며 비열한 사람, 하찮은 것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민수 5,14-15 참조) 신약 성경에서는 하찮게 여겼던 보리빵이 하느님 축복으로 큰 능력이 됨을 보여준다.(요한 6,1-15)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래보험/장래적금/장래계획/묘지구입문의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필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켄마-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플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패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Heather Chong (정혜경)Lic#0I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